

# 장애영아담당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과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분석

정대영\*, 윤혜진  
창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The Analysi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in Charge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Dae-Young Jung\*, Hye-Jin Yoon  
Special Educ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애영아담당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 실증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지역 보육교사 20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행복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긍정심리자본과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의 사회적 지지,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긍정심리자본과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장애영아담당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구축하고 사회적 지지를 함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is an empirical study aiming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from the school director and fellow teachers, and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in charge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we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rom the school director and fellow teachers on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happiness. To achieve these aim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05 childcare teachers in Gyeonggi provinc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Furthermo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from the school director and fellow teacher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Second, the social support from the school director and fellow teachers had partially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happiness. This implies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from the school director and fellow teachers play essential roles in the enhancement of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Keywords** : director support, fellow teacher suppor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ppiness, childcare teach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

\*Corresponding Author : Dae-Young Jung(Changwon Univ.)

Tel: +82-55-213-3183 email: yeman@hanmail.net

Received April 17, 2018

Revised May 2, 2018

Accepted May 4, 2018

Published May 31,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취업률 증가, 핵가족화 등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영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장애영유아 교육의 특성상 보육교사의 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교사에 대한 질적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영향력 있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교사의 질은 보육의 질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

보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무엇보다 인적자원인 보육교사가 가장 중요한 변인임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이 가정 밖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회적 모델이자 그들의 전인적 발달 및 성장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2] 보육교사의 행동특성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각과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의 행복감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3].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정서, 즉 행복감에 대한 고찰은 행복한 영유아의 양성 및 영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 특히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자로서 인간 본질과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이 필요하다.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교사들일수록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5].

조직 구성원의 수가 적고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조직은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인적 구성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교사와 원장, 교사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장, 교사 간 상호협조와 상호신뢰 및 사회적 지지는 전반적인

직무수행과 조직의 정서적 질을 높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교사의 행복에도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6]. 특히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원장 및 동료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조직자원으로 이들의 행복 또는 안녕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7].

보육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등으로 형성된 긍정심리자본과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행복감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장애아와 비장애 영아들이 통합 보육되면서 통합보육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1], [4] 장애영아담당 보육교사들의 행복감은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아담당 보육교사들의 행복감과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복감과 관련된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영아 담당 보육교사들의 행복감 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영아 담당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행복감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행복감에 대한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과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 2.1 긍정심리자본·사회적 지지·행복감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인간의 행복감과 관련된 실천적 역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긍정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8]. Luthans et al.[9]은

사람마다 다른 특성들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자원을 개념으로 파악하여 전통적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긍정심리자본 등으로 분류하면서 무형자본으로 심리자본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긍정심리자본을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의 복합적인 긍정심리상태로 정의하였다. Stajkovic[10] 역시 주어진 목표에 대하여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주의를 통해 본인이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개념들이 개별적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통합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이해될 때, 상승작용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긍정심리자본은 도전적인 과업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기효능감, 목표를 향한 인내와 필요한 순간에 목표를 재설정하며 문제나 역경에 직면할 경우 성공을 위해 견디는 희망, 난관이나 좌절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복원력,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주의 등의 복합적인 긍정심리상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 [9], [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로 통합적인 관점으로 구성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한 개인이 자신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교사가 함께 근무하는 동료교사, 또는 원장, 원감, 주임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장 내 인적 자원을 의미한다[11], [12]. Betz[13]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의 형태로 정의하였고, Schulz & Schwarzer[14]는 사회적 지지를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 다양한 정보와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House[15]는 사회적 지지를 크게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 등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최혜윤[12]은 유아교육조직에서 사회적 지지를 원장 및 동료교사 지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동료 및 원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심리적인 자원으로 보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행복감(happiness)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 또는 그런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복은 개인마다 주관적이며 삶의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하는 개인 삶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한다[6]. 행복감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삶의 만족 등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Seligman[16]은 긍정 심리학

의 웰빙 이론에 토대를 두고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 성취하는 삶, 긍정적 관계를 통한 삶, 충분히 어우러진 삶이 행복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행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보육교사 역시 보육시설에서 다양한 영유아들과 활동을 하면서 기쁨, 만족을 누리며 자신과 영아들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노력한다. 행복감의 수준은 개인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아담당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자신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아, 동료, 원장 등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실행해야 하는 행위로 보고자 한다.

## 2.1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 관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감을 높이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17]. 중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긍정심리자본이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18]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고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은 중학생의 학교생활부적응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의 구조적 모형을 분석한 연구[19]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관계가 있고 대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친구, 부모, 교수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 자원과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는 장애영아담당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10], [12], [13]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2.2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에 긍정심리자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한숙과 이성복[20]의 연구결과에서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은 행복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행복감 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등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21]에서 중등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과 정적 관계를 보였고, 긍정심리자본은 행복감과 직무스트레스 대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중등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행복감은 정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등교사들이 긍정심리자본을 가지며, 교사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고, 직무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로 구성된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인 삶과 관련 있고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동료교사와 원장의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2.3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관계

행복감은 교직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식과 신념, 가치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교사와 같은 특정 직업의 성취나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제일 좋은 모델이자 큰 영향력을 주게 되는 보육교사에게 행복감은 매우 중요하다[22]. 보육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의 상관관계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인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도 행복감의 하위요소인 긍정적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23]에서 사회적 지지는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24]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원장과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원장 및 동료교사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에서는 경기 지역 K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모집단으로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참석한 250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연구자는 참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보육교사 232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 이후 파쇄할 것을 약속하는 등 최대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설문 조사는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수행되었고 배부된 설문지 가운데 212부가 회수되었고 무응답 및 연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자료 7부를 제외한 205부를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205)

Characteristics	n(%)	
Age (years)	20~30	88(42.9)
	31~40	75(36.6)
	≥41	42(20.5)
Care work experience (years)	<3	55(26.8)
	3~9	85(41.5)
	≥10	65(31.7)
Facility Patterns	National & Public	30(14.6)
	Corporate	13(6.3)
	Private	105(51.2)
	Home	57(27.8)
All	205(100.0)	

연구 대상 장애영아담당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에서 30대 이하 42.9%, 31~40세 36.6%, 41세 이상 20.5%로 나타났고, 교사 경력에서는 3년 미만 26.8%, 3~9년 이하 41.5%, 10년 이상 31.7%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시설 형태에서는 국공립 14.6%, 법인 6.3%, 민간 51.2%, 가정 보육시설 27.8%로

나타났다.

### 3.2 측정도구

#### 3.2.1 긍정심리자본 척도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 et al.[9]에 의해 개발된 긍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조한숙과 이성복[20]이 보육교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주의 4개의 하위요인, 24개 문항의 5점 Likert 평정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한숙과 이성복[20]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alpha$ )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3.2.2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 척도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ettegrew와 Wolf[25]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기초로 최혜윤[12]이 유아교육조직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2개 하위요인(원장 지지, 동료교사 지지), 7개 문항의 Likert 5점 평정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혜윤[12]의 연구에서는 원장지지 신뢰도( $\alpha$ ) .85, 동료교사 지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원장지지 .89, 동료교사 지지 .88이었다.

#### 3.2.3 행복감 척도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Hills와 Argyle[26]의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를 기초로 하여 광희경[27]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긍정 문항 17개, 부정 문항 12개, 총 29개 문항의 5점 Likert 평정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광희경[27]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alpha$ )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3.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 자료를 통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 장애담당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긍정심리자본, 원장 및 동료교사 사회적 지지,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긍정심리자본과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Tolerance),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상관계수 등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넷째,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 및 동료교사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28]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고,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29]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연구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영아담당 보육교사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 행복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38~.74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측정변수들 간에 .9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수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은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상관계수 등을 이용하여 검토하여 공차의 값이 0.1이하 이거나 VIF 값이 10이상, 상관계수가 .90 이상이면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30]. 본 연구결과에서 공차는 .34~.62, 분산팽창지수(VIF)는 1.63~2.9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2. Variables correlation

(N=268)

Variables	1	2	3	4	5	6	7
1 self efficacy	1						
positive psychology capital							
2 hope	.72**	1					
3 resilience	.60**	.67**	1				
4 optimism	.53**	.64**	.70**	1			
social support							
5 director support	.44**	.54**	.49**	.59**	1		
6 fellow teacher support	.52**	.38**	.47**	.49**	.46**	1	
7 happiness	.68**	.68**	.74**	.70**	.61**	.62**	1
<i>M</i>	3.62	3.59	3.47	3.42	3.77	3.92	3.61
<i>SD</i>	.67	.62	.58	.61	.83	.66	.52
<i>Tolerance</i>	.40	.34	.41	.40	.58	.62	
<i>VIF</i>	2.49	2.98	2.45	2.51	1.73	1.63	

\*\**p*<.01

## 4.2 긍정심리자본과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4.2.1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effect of subject'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n child care teacher's happiness

dependent	independent	<i>b</i>	$\beta$	<i>t</i>
happiness	self efficacy	.216	.278	4.650***
	hope	.087	.103	1.540
	resilience	.289	.320	5.110***
	optimism	.221	.257	4.307***

$R^2=.674$   $\Delta R^2=.667$   $F=103.320$ \*\*\*

\*\*\**p*<.001

장애영아담당 보육교사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F=103.320$ ,  $p<.001$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심리자본은 행복감을 67.4%(결정계수,  $R^2$ ) 정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가운데 탄력성( $\beta=.320$ ,  $p<.001$ ), 자기효능감( $\beta=.278$ ,  $p<.001$ ), 낙관주의( $\beta=.257$ ,  $p<.01$ ) 순으로 보육교사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2 원장 및 동료교사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effect of subject's social support on child care teacher's happiness

dependent	independent	<i>b</i>	$\beta$	<i>t</i>
happiness	director support	.262	.416	7.596***
	fellow support	.338	.428	7.818***

$R^2=.520$   $\Delta R^2=.515$   $F=109.267$ \*\*\*

\*\*\**p*<.001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보육교사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F=109.267$ ,  $p<.001$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행복감을 52.0% 정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원장의 사회적 지지( $\beta=.262$ ,  $p<.001$ ),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 $\beta=.338$ ,  $p<.001$ )는 보육교사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 및 동료교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4.3.1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director’s support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happiness

dependent	independent	<i>b</i>	$\beta$	<i>t</i>
director support	positive psychology capital	.934	.597	10.597***
<i>R</i> <sup>2</sup> =.356 $\Delta R$ <sup>2</sup> =.353 <i>F</i> =112.293***				
happines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804	.815	20.067***
<i>R</i> <sup>2</sup> =.665 $\Delta R$ <sup>2</sup> =.663 <i>F</i> =402.704***				
happines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689	.699	14.306***
	director support	.122	.194	3.978***
<i>R</i> <sup>2</sup> =.689 $\Delta R$ <sup>2</sup> =.686 <i>F</i> =223.966***				

\*\*\**p*<.001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인인 원장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beta$ =.597,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종속변인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 =.815,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원장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며( $\beta$ =.122, *p*<.001),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 =.815,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 $\beta$ =.699, *p*<.001)에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원장의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긍정심리자본은 단독으로 66.5%, 원장의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력이 68.9%로 2.4% 늘어 긍정심리자본이 통제되어도 원장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 값은 3.69로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원장의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4.3.2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동료교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동료교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6과 같다.

**Table 6.** Mediating effect of peer teacher’s support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happiness

dependent	independent	<i>b</i>	$\beta$	<i>t</i>
fellow support	positive psychology capital	.675	.541	9.159***
<i>R</i> <sup>2</sup> =.292 $\Delta R$ <sup>2</sup> =.289 <i>F</i> =83.888***				
happines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804	.815	20.067***
<i>R</i> <sup>2</sup> =.665 $\Delta R$ <sup>2</sup> =.663 <i>F</i> =402.704***				
happiness	positive psychology capital	.670	.680	15.075***
	fellow support	.198	.251	5.563***
<i>R</i> <sup>2</sup> =.709 $\Delta R$ <sup>2</sup> =.707 <i>F</i> =246.537***				

\*\*\**p*<.001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인인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beta$ =.541,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종속변인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 =.815,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으며( $\beta$ =.198, *p*<.001),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 =.815, *p*<.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 $\beta$ =.680, *p*<.001)에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긍정심리자본은 단독으로 66.5%,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력이 70.9%로 4.4% 늘어 긍정심리자본이 통제되어도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 값은 4.71로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동료교사 및 원장의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 실증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와 비교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영아 담당 보육교사들이 인식한 긍정심리자본, 동료교사 및 원장의 사회적 지지, 행복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6],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20]와 일치되고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특정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과 역경과 장애 또는 갈등, 실패, 심지어 긍정적인 사건들, 진전, 증가된 책임감으로부터 되돌아 올 수 있는 또는 급속히 회복 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관주의의 긍정심리자본[11]이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영아를 보육하면서 동료교사와 원장 등 동료 교직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보육교사에게 이들의 사회, 심리적인 지원은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보육조직 내 수평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문화와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감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장과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지만 긍정심리자본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부모, 친구, 교수의 사회적 지지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19]에서 행복과 관련성이 있는 회복탄력성과 긍정심리자본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박수호와 이민정[31]은 일상생활에서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지지를 높게 받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고, 심리적 안정과 가족관계, 일, 여가 등에서 타인의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행복은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행복감은 교직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식과 신념, 가치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교사와 같은 특정직업의 성취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32]. 즉, 영유아시기에 영·유아에게 제일 좋은 모델이자 큰 영향력을 주게 되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동료교사, 원장 등 보육시설 내 주변 관계망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 관계적 안정감을 느낄 때 행복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적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강점과 능력의 긍정심리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에 있어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와 같은 긍정적 심리자본과 원장 및 동료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장애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효율적이며 행복한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장애 영아담당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긍정심리자본, 행복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교사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교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동료 및 원장의 사회·심리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영아를 보육하는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며, 질 높은 보육 실현을 위해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들의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행복감은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가 동시에 투입될 때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자기효능감, 복원력 등과 같은 긍정심리자본은 보육교사가 반드시 함양해야 할 핵심 역량으로 볼 수 있고, 원장과 동료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역시 보육교사들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대인관계 역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의 질은 교사라는 인적 자원에 달려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긍정심리자본, 대인관계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어, 사회·정서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영유아기에 일반영아와 장애영아들이 통합 보육하는 현실에서 보육교사의 행복은 이들의 언어, 사회·정서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결정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현장에 적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 보육교사와 장애영아 담당 보육교사의 행복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변인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도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행복감 증진에 있어 자기효능감, 회복력, 낙관주의와 같은 긍정심리자본은 이들의 행복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같은 핵심 역량을 현직 연수 단계에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또는 긍정심리자본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편성 및 운영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C. Howes, E. W. Smith, "Relations among child care quality, teacher behavior, childrens' play activities, emotional security, and cognitive activity in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10, no. 4, pp. 381-404, 1995.  
DOI: [https://doi.org/10.1016/0885-2006\(95\)90013-6](https://doi.org/10.1016/0885-2006(95)90013-6)
- [2] V. Kristina,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perspectives, effective programs and impacts on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Inc., 2015.
- [3] C. Barker, B. Martin, "Dilemmas in teaching happiness", *Journal of University Teaching & Learning Practice*, vol. 6, pp. 1-14, 2009.
- [4] Y. J. Choi, K. M. Le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program to enhance happiness for the educators in early childhood",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2, no. 1, pp. 395-416, 2012.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2.32.1.017>
- [5] F. Luthans, C. M. Youssef,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vol. 33, no. 2, pp. 143-160, 2004.
- [6] S. Y. Jung, K. R. Kim,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child care teachers on happin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 16, no. 3, pp. 1-22, 2017.  
DOI: <https://doi.org/10.21183/kjcm.2017.09.16.3.01>
- [7] C. D. Ryff, B. Singer, "Experience and well-being: explorations on domains of life and how the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0, pp. 193-206, 1997.  
DOI: <https://doi.org/10.1080/016502597385289>
- [8] Y. S. Jo,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Docto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5.
- [9] F. Luthans, B. J. Avolio, J. B. Avey, S. M. Norma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vol. 60, pp. 541-572, 2007.  
DOI: <https://doi.org/10.1111/j.1744-6570.2007.00083.x>
- [10] A. D. Stajkovic, "Development of a core confidence higher order constru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1, no. 6, pp. 1208-1224, 2006.  
DOI: <https://doi.org/10.1037/0021-9010.91.6.1208>
- [11] S. Cohen, H. Hoberman, "Positive event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pp. 99-125, 1983.  
DOI: <https://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 [12] H. Y. Choi, "The effects of teacher efficacy and social support by directors and colleague teachers on the teaching commitment of kindergarten teachers", *The Research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upport*, vol. 11, no. 3, pp. 73-93, 2016.  
DOI: <http://dx.doi.org/10.16978/ecec.2016.11.3.004>
- [13] N. E. Betz,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vol. 17, pp. 136-144, 1989.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89171008>
- [14] U. Schulz, R. Schwarzer, "Long-term effects of spousal support on coping with cancer after surge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23, no. 5, pp. 716-732, 2004.  
DOI: <https://doi.org/10.1521/jsecp.23.5.716.50746>
- [15] J. H. House,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81.
- [16] M. E. P. Seligman,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Free Press, 2011.
- [17] E. Jeong, M. R. Jung, "Convergenc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on depr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 no. 9, pp. 365-373, 2017.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7.15.9.365>
- [18] D. S. Jung, J. G. So,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school mal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1, pp. 905-926, 2017.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21.905>
- [19] S. Y. Bae, "The analysis on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0, pp. 11-140, 2017.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20.113>
- [20] H. S. Cho, S. B. Lee, "A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gratitude disposition to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n happiness in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4, no. 5, pp. 69-82, 2016.  
DOI: <https://doi.org/10.7466/JKHMA.2016.34.5.69>
- [21] T. W. Kim, K. M. Choi, "A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and stress to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secondary school teachers", *Inha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vol. 21, no. 4, pp. 210-240, 2015.  
DOI: <http://dx.doi.org/10.24159/joec.2015.21.4.211>
- [22] M. S. Song,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f these about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The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 13, no. 3, pp. 149-169, 2014.  
DOI: <http://dx.doi.org/G704-001863.2014.13.3.003>
- [23] Y. H. Kim, H. J. Ahn, "The effects teacher's of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happines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8, no. 4, pp. 235-250, 2016.  
DOI: <http://dx.doi.org/G704-SER000001622.2016.8.4.005>
- [24] S. H. Jwa, J. J. Youn, H. J. Lee, "A study on subjective well-being,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f teachers - focused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busan",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vol. 6, no. 4, pp.231-238, 2016.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6.04.20>
- [25] L. S. Pettegrew, G. E. Wolf, "Validating measures of teacher stres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19, pp. 373-396, 1982.  
DOI: <https://doi.org/10.3102/00028312019003373>
- [26] P. Hills, M. Argyle,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 33, pp. 1073-1082, 2002.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
- [27] H. K. Kw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self-identity and teacher's efficacy belief,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Unpublished Docto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1.
- [28]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9]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1982.  
DOI: <https://doi.org/10.2307/270723>
- [30] B. G. Cha, K. W. Cha,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 [31] S. H. Park, M. J. Lee, "Social recognition as a determinant of happiness", *Society & Theory*, vol. 23, pp. 361-391, 2013.  
DOI: <https://doi.org/10.17209/st.2013.11.23.361>
- [32] K. M. Lee, Y. J. Choi,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index, character strengths, and job satisfaction of preschool educato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9, no. 3, pp. 215-235, 2009.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09.29.3.010>

정 대 영(Dae-Young Jung)

[정회원]



- 1986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문학석사)
- 1992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문학박사)
- 1998년 8월 ~ 현재 : 국립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

윤 혜 진(Hye-Jin Yoon)

[정회원]



- 2012년 7월 :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 (문학석사)
- 2015년 2월 : 창원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교육